

Tim Gombis 박사 , 갈라디아서, 세션 3, 갈라디아서 1:11-2:10

© 2024 팀 고펀비스 (Tim Gombis)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Tim Gombis 박사입니다 . 갈라디아서 1:11-2:10의 세 번째 세션입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나는 갈라디아서 1. 11부터 2. 10까지 다룰 것인데, 이는 실제로 1장 11절부터 1장부터 1장 24절까지의 두 부분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행한 일을 보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의 신성한 기원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나는 그것을 바울이 복음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혹은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청중들이 어떻게 복음이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뒤집고 모든 것을 재정리하기를 원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갈라디아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된 소위 예루살렘 기둥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바울 복음의 신성한 기원, 또는 나는 바울의 복음 수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수사법은 두 가지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복음과 사도적 사역의 신성한 기원을 분명히 밝히거나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역을 갑자기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바울의 복음 부르심 전후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유대적 유산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맺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그것은 극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져왔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1절에서 각각 접속사로 시작하는 세 개의 연속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접속사 4.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 수업에서 이와 같은 접속사를 볼 때 저는 접속사의 경이로움과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일로 당신을 지루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속된 4개를 보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Paul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자신이 하는 진술의 논리를 끌어내거나 무언가를 정교하게 설명하거나 자신이 하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가 세 번의 연속적인 진술을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특이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13절, 나의 이전 유대교 생활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이제 이러한 진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연관성이 뒷받침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넷째, 여기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런 다음 두 번째 넷, 즉 13절의 두 번째 연결이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4절에서 나의 이전 유대교 생활에 대하여 너희가 들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내 복음이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사도적 사역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결과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묵시론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정보의 관점에서 계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계시가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현 세계 질서에 급진적으로 침투한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Paul의 삶은 계속되며, Paul의 삶은 근본적으로 중단됩니다.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손을 뻗어 바울의 삶을 붙잡으시고 극적으로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에게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이제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의 삶의 방향은 인간 영역의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역동성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은 이 새로운 창조 영역에서 나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련의 역동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바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 차이의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의 이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이러한 이전 생활 방식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자신이 종사했던 생활 방식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유대교라고 알고 있는 현대 종교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교에서의 이전 생활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는 유대인 생활의 순수성, 이스라엘의 순수성에 열정적으로 헌신한 유대인 하위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헬레니즘 영향이 자유롭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모든 종류의 외부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유대인 생활의 순수성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노력하는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전투적인 유대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고 열정적이고 열성적인 유대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유대교는 이 종교 공동체, 유대 공동체 내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할 수 있는 운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유대교에서 발전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강렬하고 열성적이며 강압적이고 열정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전체를 위한 의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런 그룹에서의 그의 삶은 어땠나요? 바울이 행한 일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가 예전에 읽매여 있던 이런 생활 방식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순결과 축복을 위해 열심이 있는 이 공동체의 일원인 바울이 자신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과 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유대교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입니다. 그는 실제로 계속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극도로 열심히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통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의 그룹이 스스로 말했을 모든 삶의 방식, 가르침, 지식 체계에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에 대한 헌신을 보장하는 이것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구체화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실제로는 과거에 구현되었던 유전적 방식에 대한 열심일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종교 공동체 내의 하위 그룹은 자신이 전통에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바울의 삶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영역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통제, 통제에 대한 열정, 오래된 물려받은 패턴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형성하려는 열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문화적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길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수사학적 효과, 즉 바울이 유대교에 진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행하는 것의 수사학적 효과는 그가 이런 종류의 유대교에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서 싸우는 것인데, 그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회심 후 바울은 이것이 실제로 그가 추구하는 바의 전부임을 이해합니다. 글썄, 그 삶의 추구 속에서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나오며, 이는 15절에서 말하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것이 제가 말하는 변화가 하나님의 성취이고, 바울의 복음의 성취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 전 바울의 회심 후 바울로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의 아들을 계시하신다는 이 표현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16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에게 계시하신다는 말로 더 잘 번역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훨씬 더 나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계시가 실제로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계시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풀에서 말해야 한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거나 바울이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는 내면화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의 몸이 기본적으로 한때 바울의 조상 전통의 영광을 구현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장소이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신 장소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회심 후 바울의 삶을 살펴보고 이 계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가 언급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울의 부르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계시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포함합니다. 이제 이것은 Paul에게 극적인 반전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그가 발전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외국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며 나머지 국가를 정화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 내에서 작고, 고립되고, 열정적이고, 열성적인 그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이스라엘 국경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의 몸에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몸은 그가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열방을 배제하는 좁은 의제에 전념하고 이제 열방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것이 국경을 넘어 수많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민에 관한 현대의 논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체류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가 국제 무대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계시가 바울의 삶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맥에서 전개되는 실제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니다.

그것의 수사학적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니다. 바울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인류의 건축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학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니다. 매우 미묘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여기에 올려 놓았어야 했는데,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는 다메섹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까지 3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라디아의 지리적 이동과 문제만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유대교 기둥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갇혀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열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시고, 로마와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국제적인 의제를 갖고 계시며, 바울의 삶은 그러한 변화의 구체화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일부가 바울에게 나타날 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급박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새 일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거기 머물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에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단지 시리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막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바울이 실제로 아라비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갈라디아에 있는 청중, 유대인 기독교 청중들에게 좀 더 선동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지리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예루살렘과 유대교의 정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이 모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시점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다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18절을 보면 그가 회심한 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나는 거기에 3주 동안만 머물렀다.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2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야 그는 예루살렘 중심부로 갔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동자들, 선교사들의 선생들, 뭐라고 부르든 예루살렘에서 온 갈라디아 선생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복음은 그냥 날조된 것입니다. 갑자기. 그는 예루살렘 지도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가 임무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Paul은 아마도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2주 동안만 있었고 홍보 쇼 같은 일을 하러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글썄요, 바울은 여기 21절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라.”

그런데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순수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은 아직 그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으나 오직 듣고만 있었느니라.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기본적으로 유대에서 바울의 변화된 삶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새로운 사명은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바울이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의 교사들을 다시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일종의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어받은 신학적 설명입니다. 역사적 조상의 유산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심지어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단지 복음에 의해 넘어가게 되어 국제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좁은 초점, 강압적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국제적인 유대인-이방인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많은 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청중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변화를 보고, 복음이 그의 삶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 복음이 우리 삶과 공동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교사들이 원하는 것처럼 유대교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낡은 세상이나 낡은 방식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산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공동체 생활과 그리스도 안의 삶은 인간의 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혜로 지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삶은 이러한 변화를 듣는 교회 측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냥 멈춰서 갈라디아서 수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여기서 멈추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 특히 이러한 질문은 바울 연구의 역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신약성서의 다른 몇 가지 본문은 비극적이게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라난 반유대주의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반유대주의자입니까? 갈라디아서, 특히 바울이 1장에서 방금 한 진술 중 일부가 반유대주의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반유대 정서를 배반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여기서 반유대주의자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울은 유대교의 이전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유대교는 마카베오 문학에서 유대인의 삶의 정화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유대인의 하위 집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나는 유대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교 생활 방식의 갱신과 정화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대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말했듯이 육신에 따른 그의 친척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을 배반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려는 이전의 열정이 그릇된 길로 인도되었음을 보고, 그것이 바로 그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유대주의적 수사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의해 지향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리적 방향 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로 간다.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에는 반유대주의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여기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이것을 묵시적인 틀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 슬라이드에서 방금 사용한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대의 교차점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로 현악한 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실제로 여기에 무엇을 쓰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글을 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옛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 이 우주 영역에서 구출되었으며,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영역, 우주 존재 방식의 새로운 창조를 창조하신 수단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 십자가는 우리가 이 새로운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됩니다. 바울이 이런 종류의 역동성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편지에서 목표는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의 공동체가 새 창조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삶을 완전히 지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 악한 시대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시대가 겹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종류의 삶의 단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바울이 여기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하위 집단 내의 그의 삶입니다. 내 생각에 그는 현 악한 시대에 철저히 지향된 생활 방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바울의 수사가 반유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유산을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그 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자신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일종의 삶의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꼭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강압적인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삶의 지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맞서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의 동시대 사람들을 뛰어넘어 발전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영역의 삶은 파괴의 역학, 권력의 역학, 파괴적인 경쟁의 역학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Paul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 그의 업적 등을 모방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새로운 창조 시대로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봉사, 겸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사실, 이제 그의 가장 큰 질문은 바울로서의 삶이 어떻게 십자가처럼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력 위임, 권력 항복, 타인에 대한 봉사, 타인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십자가형의 삶을 살 때, 그런 삶이 더욱 부활의 능력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낳는 삶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십자가로 형성된 삶을 살고 십자가로 형성된 정체성에 거주할 때 자신의 공동체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갱신, 회복, 구속, 일치, 상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공동체에서 훨씬 더 많은 부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에서 특히 교회들 사이에서 전유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존재에 스며드는 제도적 측면을 느슨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파에 대한 충성, 교리적 유산에 대한 충성,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신학교, 내가 속한 신학적 지향.

내가 더 큰 기독교 교회 내의 한 하위 그룹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열정을 키우고 그 하위 그룹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나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나는 우리 교단에 대한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우리의 축복과 기쁨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여기지 않는다면 제도는 현 악한 시대의 역학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참으로 십자가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여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자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사역의 동역자, 내가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이웃. 그것은 기관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거나 아마도 나의 교파적 충성심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신학적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른 사람을 향한 파괴적인 자세를 어떻게 예시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가 어떻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사도적 사명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예루살렘 지도자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디도를 복음의 시험 대상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변화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 그는 14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내가 오직 2절의 계시를 인하여 거기로 올라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반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갈라디아에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사도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에서 나온 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전파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사도적 사명과 복음 전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그들에게 제출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완전히 잘못 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의 사도적 설교가 유대 교회와 비유대 교회의 연합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복음 사역이 기독교 교회의 분기를 초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의 사역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사역 사이에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균열이 있었다면 그는 헛된 일을 했을 것입니다 .

바울은 3-5절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시험 사례로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글쎄, 예루살렘 기둥은 그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정확히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거짓 형제들은 어느 정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압력을 가하는 거짓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이들은 아마도 이전에 안디옥에 올라와 예루살렘 공의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속한 기독교인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갈라디아로 올라갔고 갈라디아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동일한 그룹의 선교사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꽤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폴이 이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흥분한 결과입니까? 내가 그것에 무게를 두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비난입니다. Paul이 이에 대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것을 보고 베드로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그는 그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민족, 다국적 민족을 세우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현대의 관련성으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 교회는 복음이 인종 차별, 이민 문제, 인종 다양성 문제, 인종 긴장, 인종차별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일종의 생각만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국적 민족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할 때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문제로 봅니다. 이것을 본 Paul은 기본적으로 Peter와 대면하여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리를 잃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5절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 거짓 형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여 한 시간이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5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언급할 때, 그것은 14절에서 다시 반복되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대결을 갈라디아의 상황과 연결시킵니다.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디도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굴복했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민족 차별과 관련된 복음 진리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데, 이는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맥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사역의 동역자로 데리고 왔지만 그에게 할례를 받은 후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사로 데려온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역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지 완전히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신다는 것은 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범죄가 될 것이며, 그것은 복음에 대한 범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역사적으로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 급진적인 포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지혜 문제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장 6절부터 10절로 넘어가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확증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언급합니다. 흥미롭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기둥이라고 부를 때 약간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6절에 명망 있는 자들은 내게 헌금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9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들이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예루살렘 지도부에 대해 이렇게 비꼬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웅 숭배 경향 때문입니다. 이 훌륭하고 매우 흥미롭고 연줄이 좋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자격 증명을 가지고 왔고, 갈라디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와 관련된 모든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인 것처럼 보인다면,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 말을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기둥 가운데서 나온 이 큰 인물들, 이 교사들에 대해 약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할 때 끊임없이 복음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점점 덜 이슈화하는데, 이는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자세로 사역하는 것에 기초한 새로운 창조 현실에 기초한 사역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 것.

내 생각에 우리는 부패한 사고방식과 부패한 태도로 인해 형성되는 사역 방식의 세계에서 많은 예를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자격, 개인적인 카리스마,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훨씬 더 존경하는 경향이 있는 현 악한 시대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사역에 대해 바울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복음의 진리 대신에 자격 증명에 굴복하는 갈라디아인들에 대해 약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루살렘 기둥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보탬이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확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아무 것도 헌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와 같이 나도 무할례자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은 것을 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내게 은사를 주었느니라 교제의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확언이 있는데, 그것은 좀 흥미롭습니다. 나는 9절을 보고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즉 본다는 말은 종종 묵시적인 힌트를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연루된 사람들은 선견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시각, 청각의 동사는 묵시적인 상황과 연결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아들인 바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보여지며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제시하는 또 다른 주장입니다. 그들은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사도직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의 신뢰성을 확증하는 사람들입니다. Paul이 어떻게 이 섹션을 닫고 이동하는지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은 Paul에게 한 가지 우선순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싶어했던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도부가 추가한 유일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이 아주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측면, 즉 이방인 선교와 예루살렘 할레교회의 선교를 생각해 보면 긴장감이 있었지만 둘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날개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현재 세계에서 경제, 성장, 임금 등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정치에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Richard Hayes는 바울이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무엇이든 생각하면서 성경을 앞뒤로 탐색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본문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헤이즈가 여기서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네 형제 중 가난한 사람이 너와 함께 있거든 너는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가난한 형제에게 네 손을 움켜쥐지 말며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너그럽게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을 넉넉히 빌려줄 것입니다. 제칠 년 곧 면제의 해가 가까이 왔으나 네 불쌍한 형제를 눈으로 보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구나 하는 비열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두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넉넉히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궁핍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보살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지속적인 사명의 일부였던 헌금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에 기독교 교회가 개척되는 곳이면 어디든,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경험하는 부활 생명의 또 다른 방식은 전체적인 존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습관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대함과 환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까지 바울의 논증을 진행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역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르친 Tim Gambas 박사입니다. 갈라디아서 1:11-2:10의 세 번째 세션입니다.